



3월 30일

팔레스타인 땅의 날

3월 30일은 '팔레스타인 땅의 날'입니다. 1976년 3월 11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현재 이스라엘 북부) 지역 영토를 강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거대한 시위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벌어졌고, 3월 30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6명이 살해됐고, 100명 넘게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연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마을(정착촌)과 군대 훈련 캠프를 건설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갈릴리 '유대화'라 부른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리며 '팔레스타인 땅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3월 30일에는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환 대행진

2018년 3월 30일, 가자지구 국경 지대에서 '귀환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열린 이 시위는 2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건국 때 쫓겨난 난민들의 돌아갈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위를 (주로 저격수를 배치해) 잔혹하게 탄압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22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중 46명은 18세 미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인종청소를 자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서안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 군사 공격으로 인해 주민 강제 이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가 증가해 2년 동안 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쫓겨났습니다.



49주년 땅의 날

올해 49주년 땅의 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